

두 명의 사도와 세 명의 칠십인, 한국을 축복하다



지난 5월 31일, 십이사도 정원회의 쿠엔틴 엘 쿡 장로,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 칠십인 정원회의 리처드 제이 메이너즈 장로, 마이클 티 링우드 장로, 스코트 디 와이팅 장로가 한국을 동시에 방문했다.

지난 2014년 5월 31일 토요일, 서울 경인 지역과 대전 선교부 지역의 회원들은 주님의 사도와 총관리 역원들을 만나는 특권을 누렸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쿠엔틴 엘 쿡 장로와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 칠십인 회장단의 리처드 제이 메이너즈 장로, 칠십인 정원회의자 북아시아 지역 회장단인 마이클 티 링우드 장로, 스코트 디 와이팅 장로가 동시에 한국을 방문한 것이다.

쿡 장로와 링우드 장로는 서울 남 스테이크 영등포 와드를 방문하여, 토요일 하루 동안 서울 경인 지역의 선교사 훈련 모임, 신권 지도자 훈련 모임, 노변의 모임을 차례대로 열었다.

같은 시각 크리스토퍼슨 장로, 메이너즈 장로, 와이팅 장로는 대전 스테이크 선화 와드에서 역시 세 가지 같은

종류의 모임을 진행했다. 서울 경인 지역과 마찬가지로, 신권 지도자 훈련 모임에는 대전 선교부 내 모든 스테이크 및 지방부 회장단과 감독 및 지부 회장단, 대체사 그룹 지도자, 장로정원회 회장이 모두 초대되었다. 이 신권 지도자 훈련 모임 시간 동안 충분한 질의 응답 시간이 주어졌고 신권 지도자들은 평소에 가졌던 의문이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었다.

쿡 장로와 크리스토퍼슨 장로는 사도의 권세로서 한국 성도들을 축복했으며, 선교사 훈련 모임과 신권 지도자 훈련 모임의 참석자 전원과 일일이 악수하며 인사했다.

주님의 두 사도와 세 명의 칠십인은 마지막 모임인 노변의 밤에서, 모든 회원들을 위해 영감어린 주님의 말씀을 전했다. 지역 소식에서는 노변의 모임의 말씀을 기록한다.



서울 경인 지역 노변의 모임

노변의 모임은 6시 반에 시작했는데, 시작 한 시간 전부터 주님의 사도를 만나려는 회원들로 예배실이 가득 찼다. 1000석 규모의 영등포 와드 예배실과 활동실조차 앉을 자리가 부족하여 다른 층의 큰 공과 방 대부분을 사용하여 생중계했을 정도다. 많은 성도들의 얼굴에 서운한 기색이 역력했는데, 직접 얼굴을 뵙고 싶었으나 자리가 부족해서 뒷자리나 다른 층으로 가야 했기 때문이었다. 주님의 사도를 기다리는 회원들의 열정은 이처럼 뜨거웠다.

첫 번째 연사였던 링우드 장로는, 선지자 여호수아가 광야에서 그의 백성들에게 권고한 것을 한국 성도들에게 적용했다.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여호수아 3:5).

이 구절은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이에서, 내일이 아닌 바로 오늘,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우리를 성결하게 해야 합니다. 성결함은 깨끗함과 거룩함을 의미하며, 헌신하고 우리를 바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목적과 하나님의 목적이 같아질 때, 우리는 비로소 거룩하게 됩니다.”

링우드 장로의 말씀이 끝나자, 온누리 및 남 스테이크 연합 합창단은 ‘아름다운 시온 위에다’를 부르며, 영을 초대했다. 다음 연사인 쿡 자매는 이 합창이 ‘하늘의 합창단에 둘러싸인 것처럼’ 아름다웠다고 극찬하며 말씀을 시작했다.

쿡 자매는 노변의 모임 직전에 열린 신권 지도자 훈련 모임 시간을 이용하여 한국 서울 성전에서 엔다우먼트를 받는 부지런함을 보였다. 그는 성전의 모습과 함께, 이 노변의 모임의 아름다운 광경을 마음에 담아 돌아가고 싶다고 말하며, 한국 성도들에게 특별한 감사를 표현했다.

그는 이어서 어린 시절의 경험에 비유하여 사랑스러운 간증을 나누었다. 그녀는 어린 시절, 마당이나 잔디밭에서 보물을 찾아내곤 했는데, 그것은 때로 작고 예쁜 돌, 나뭇잎, 알록달록한 유리조각 같은 것들이었다. 쿡 자매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자라면서 점차 제 삶의 진정한 보물은 상자에 담을 수 없는 영속적인 것이라는 것, 즉, 성신의 은사, 구원의 계획에 대한 간증, 그리고 제 남편과 자녀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행하거나 가르치는 모든 것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안에서 자녀와 부모를 하나로 연합하는 것’이라는 패커 장로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쿡 장로는 링우드 장로가 언급한 ‘성결함’과 ‘거룩함’, 쿡 자매가 말한 ‘가족’에 대해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그가 전한 말씀의 주제는 성전 사업과 가족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그는 하나님의 집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은 장막 저편의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는다고, 과테말라의 한 총관리 역원과 그의 아내가 성전에서 봉사하며 경험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 자매는 성전에서 어떤 신회원 가족의 인봉의식을 도왔는데, 인봉 의식 후 해의 왕국실의 거울에서 그곳에 없는 (영의 세계의) 사람들의 얼굴을 봤다. 그 자매가 가족에게 “혹시 식구가 더 있나요?”라고 물었을 때, 그 가족에게 죽은 딸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신회원이었다. 그 가족은 죽은 딸까지 인봉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몰랐던 것이다. 영의 세계에서 온 도움 덕분에 그들은 죽은 딸까지 함께 인봉받을 수 있었다.

“물론 이런 사건이 항상 일어나지는 않지만, 돌아가신 가족을 위해 성전 사업을 할 때에는 장막 저편으로부터 항상 도움과 원조가 올 것입니다. ……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하늘의 조직은 가족에 기초를 두기 때문에 죽은 자를 위한 성전 사업은 우리의 의무’라고 가르쳤습니다.

또한, 우리 개인도 성전에 갈 때 평화와 위안, 응답 등 어떤 것으로든 축복받을 수 있습니다. 성전에 가십시오.”

쿡 장로는 성전에 대한 권고를 마무리하고, 가족을 단합하고 강화하는 것으로 화제를 옮겨갔다.

그는 가족과 함께 샌프란시스코 만 지역에 거주했던 경험담을 나누었는데, 그곳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후기 성도 청소년이 소수일 뿐만 아니라, 마약 밀매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는 지역이라고 한다. “이곳이 자녀를 키울 수 있는 곳인가?”라는 질문에, 1960년대 후반, 당시 십이사도



왼쪽 페이지 사진:

노변의 모임에서 말하는 쿡 장로

현재 페이지, 차례대로: 영등포 와드 입장하는 쿡 장로 부부, 함께 말하는 링우드 장로와 쿡 장로, 선교사 훈련 모임에서 선교사들의 합창, 말하는 쿡 자매, 회원과 악수하는 쿡 장로, 쿡 장로가 입장하자 자리에서 일어나 맞이하는 참석자들, 노변의 모임에서 노래하는 합창, 신권 지도자 모두와 악수하는 쿡 장로



정원회의 일원이었던 해롤드 비 리 장로는, 다음의 세 가지 권고 사항을 주셨다. 당시 그 지역이 현재의 한국의 상황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좋지 못한 환경일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성도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메시지일 것이다.

1. 가정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시온으로 만드십시오. 가족 경전 읽기와 기도, 가정의 밤을 하십시오. 특히, 가족은

서로 연합하는 동등한 협력자여야 하며, 우리는 자녀를 비평하는 것을 멈추어야 합니다.

2. 지역 사회에서 빛과 모범이 되십시오. 우리 삶에서 복음이 증명되는 것을 보여야 합니다.

3. 성전의 성약을 여러분의 목표로 만드십시오.

쿡 장로는, “복음은 때로 복잡해 보이지만, 복음의 기본과



우리가 할일은 단순합니다. 신약 시대에, 혈루병에 걸려 주님의 옷을 건드렸던 여인을 생각해봅시오. 여러분의 신앙을 증진하기 위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십시오.”라고 전하고, 주님의 사도로서 한국을 축복하며 말씀을 마무리했다.

위 사진, 왼쪽부터 오른쪽: 모임을 시작하며 회중에게 인사하는 크리스토퍼슨 장로 부부, 신권 지도자들과 악수하는 크리스토퍼슨 장로
아래 사진: 선교사 훈련 모임에서 찬송가를 부르는 대전 선교부 선교사들
오른쪽 페이지 위 사진, 왼쪽부터 오른쪽: 노변의 모임을 위해 선화 와드에 모인 성도들, 신권 지도자 훈련 모임을 위해 모인 형제들

대전 선교부 지역 노변의 모임

저녁 6시에 시작되는 노변의 모임을 위해 회원들은 일찍 도착하여 주님의 종을 기다렸다. 크리스토퍼슨 장로와 악수를 하기 위해 기다리는 어린 소년들의 순수한 얼굴에서 설렘이 느껴졌다. 청년들은 일찍부터 앞자리에 앉아 모임을 기다리며, 스마트폰을 이용해 총관리 역원들의 프로필을 검색하기도 했다. 이런 모습을 지켜보던 성인 회원들의 입가에 훈훈한 미소가 번졌다.

첫 번째 연사인 낸시 제이 메이너즈 자매는, ‘공해’를 세상의 불의한 영향력에 비유하면서, 공해가 우리의 옷을 더럽히듯이,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지 않는다면 불의한 영향력이 우리를 더럽힐 것이라는 명확한 말씀을 전했다.

이어서 나온 메이너즈 장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두 가지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신의 은사라는 것을 가르쳤다. 그는 제3니파이서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미대륙의 성도들을 위해 성신을 내려주기를 기도했던 부분을 인용하며, 우리가 성신을 느끼기에 합당한 것, 성신의 느낌에 민감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가르쳤다.

대전 스테이크 합창단이 ‘내 평안 어디서 찾을 수 있나?’를 부른 뒤, 크리스토퍼슨 자매가 연단에 올라왔다. 그는 크리스토퍼슨 장로의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크리스토퍼슨 자매는, “그는 최소한의 생활비를 남긴 채, 자녀들과 임신한 아내를 뒤로하고 선교사역을 떠났습니다. 또한 부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큰 부의 기회도 거절했습니다.”라며,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권유했다. 또한 그는, 한국어로 자신의 기본적인 믿음과 간증을 나누었는데, 서툰 한국말이었지만 꽤 긴 내용이었고 마음을 담아 나누었기 때문에 듣는 이들의 귀와 마음이 더불어 감동할 수밖에 없었다.

마지막으로 연단에 올라선 크리스토퍼슨 장로는 가장 먼저 이 지역의 성도들에 대한 몬슨 회장의 사랑을 전했다. 또한, 오늘의 모임이 있기까지 수고한 모든 이들에게 일일이 감사를 표했다.

그는 앞서 나온 연사들의 말씀들을 일일이 되짚으면서 자신의 간증을 더했다. 특별히, 그는 오전에 대전 선교부 지역의 선교사들과 가진 모임을 언급하며, “그들은 정말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들에 대한 자신을 가져도 됩니다. 그들에게 친구를 소개해 주십시오. 설령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선교사와 알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친구들이 여러분을 더 좋은 사람으로 생각할 것입니다.”라고 확신에 찬 권유를 전했다.

그는 아프리카의 성도들을 방문했을 때 받았던 영감을 나누면서, “몰몬정에 반복적으로 약속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우리의 땅’에서 번성할 것입니다. 이 약속은 미대륙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가르쳤다. 특별히, 번성의 정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먹고 입는 것이 부족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는 영적인 축복이라고 전했다.

또한, 그는 자신의 아버지에게 대한 여운 깊은 이야기도 나누었다. 그의 아버지가 지방 의회 의원 선거에 출마해서 아들들에게 광고지를 나눠주도록 했을 때, 아들들은 만나는 사람들로부터, “너희 아버지를 알고 있단다. 아주 훌륭한 분이시지.”라는 말을 들었다. 이것이 아버지가 선거에서 이기는 것을 보는 것보다 값진 경험이었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젊은이 여러분, 여러분보다 먼저 계셨던 분들의 유산을 지키십시오. 훌륭한 삶으로서 그분들을 영예롭게 하십시오. 그리고 어른들은 좋은 모범을 보이고, 좋은 유산을 남기십시오.”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사도로서 축복을 남기며 신앙과 보호에 관한 많은 축복을 약속하고 구주에 대한 간증을 나눔으로써 모임을 마쳤다.

크리스토퍼슨 장로는 기차 시간을 맞추기 위해 모임이 끝나자마자 건물을 나가야 했지만, 서두르는 와중에도 통로 근처에 있는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기도 하며 진한 정을 남겼다.

모임이 끝난 후, 참석했던 이들의 마음에서 놀라운 변화들이 예를 들어, 홍성 지방부 서산 지부에서는, 신권회와 상호부조회 특별 합동 모임이 진행되어, 크리스토퍼슨 장로의 가르침을 개인과 가정, 교회에 적용하는 시간을 가졌다. 회원들 모두가 현재 자신의 복음 생활에 대해 돌아보고, 지부가 발전하는 데 필요한 사항들을 협의했다. 복음 안에서 가정의 역할과 교회의 역할에 대해 함께 토론했다. 성찬식 모임에서는 많은 성도가 모임에 다녀와서 느낀 간증을 나누었다. 평소의 궁금증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찾은 이야기, 복음의 가르침대로 살고자 하는 소망이 커졌다는 이야기 등 모임에서 얻은 좋은 것을 서로 나누고자 하는 열정이 컸고, 금식 간증 시간 동안 연단은 잠시도 비어있지 않았다.

십이사도와 칠십인의 방문 후, 회원들은 구원 사업을 서두르기 위한 용기와 자신감이 자랐다. 특히, 훈련을 통해 한 단계 발전한 신권 지도자들에게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랑이 느껴졌다. 이러한 성도들의 마음의 큰 변화를 목격한 이들은 연사들이 참된 주님의 종임을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었다. ■

대전 선교부 지역 기사 제공: 정재진 형제



지난 6월 1일, 광주 스테이크를 헌납하는 특별 스테이크 대회를 위해 십이사도 정원회의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와 칠십인이자 북아시아 지역 회장단의 보좌인 스코트 디 와이팅 장로가 광주에 방문했다. 또한, 헌납을 기념하는 특별 기념행사가 6월 6일부터 8일까지 2박 3일간 열렸다.

광주 스테이크 센터 헌납 특별 스테이크 대회

스테이크 대회의 첫 번째 연사로서, 스테이크 회장인 오석중 형제는 부푼 가슴으로 기쁨을 표현했다. 그는, “그동안 많은 회원들이 하나가 되어 구도자를 찾고, 새로운 회원들의 지속적인 활동을 도와주려 노력했습니다.”라고 말하며, 회원들의 신앙과 그들이 행한 순종에 감사를 전했다. 오 형제는 또한 주님의 축복에 감사하며, 회원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사도를 통해 전달되는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것을 요청했다.

스테이크 대회를 위해 새로운 집회소를 방문한 많은 형제자매들은 집회소의 아름다운 외관과 건물에서 나오는 평화로운 느낌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칠십인인 와이팅 장로 또한 말씀 중에 새 집회소 건물이 참 아름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기억하는 깊은 통찰력을 나타내 보였다.

“이 건물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와 복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바로 여러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이 건물은 정말 아름답지만, 훨씬 더 아름다운 것은 회원 여러분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순수함입니다.”

스테이크 대회의 마지막 연사인 크리스토퍼슨 장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축복하셔서 크게 번성하게 하셨다며, 195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한국의 역사와 발전을 되돌아보았다. 물질적 발전뿐 아니라 한국의 구원 사업도 빠르게 번성했음을 강조했다.

“김호직 박사님 시절에 시작된 한국의 구원 사업은 가속도를 내며 전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구원 사업을 서두르고 계신 것은 그분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 긴박하고도 긴급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복천년 때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의로운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구원 사업은 회장 양쪽에서 모두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 위성 방송 한국 스테이크 대회를 비롯하여 최근 한국을 방문한 여러 본부 직원들의 강조 사항이





‘가정을 강화’하는 것에 집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크리스토퍼슨 장로 역시, 같은 사향을 강조했는데, 그는 이 지상에서 구원 사업이 일어나야 하는 가장 중요한 장소가 바로 가정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가정에서 구원 사업을 서두르는 방법은, 우리가 자칫 소홀해지기 쉽지만 영을 느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 즉 ‘가족이 함께 경전을 공부하는 것’이다. 크리스토퍼슨 장로는, 가정에서 복음을 함께 배우고, 복음에 따라 생활하는 방법에 대해 계속 공부하도록 권고했다. 가족이 함께 경전을 읽을 때, 아주 영적인 순간을 경험하게 된다. 또한, 경전을 읽으며 자녀들은 성신의 음성을 인식하기 시작한다. 즉 영의 언어를 배우게 되는 것이다. 크리스토퍼슨 장로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이 구주를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가족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과 은혜가 필요하며, 우리가 그분을 향해 나아간다면 그분께서는 팔을 벌려 여러분을 안아주실 것입니다.”라는 권고로 말씀을 마무리했다. 모든 말씀이 끝나고, 크리스토퍼슨 장로는 집회소를 헌납하는 기도를 드렸다. 이 시간 동안, 심지어 갓난 아기조차 울지 않았으며, 참석한 모두가 강한 영에 휩싸이는 경험을 했다. 참석했던 자매들 대부분이 눈물을 흘렸으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특별한 느낌을 받았다.



광주 스테이크 센터 헌납 기념행사

광주 스테이크 센터 헌납 기념행사는 ‘one mind, one heart(한 마음 한 뜻)’라는 주제로 새로운 집회소인 광주 스테이크 센터에서 진행되었다. 첫째 날인 6일 금요일에는 체육대회를, 7일 토요일에는 선교 전시회와 바자회, 문화의 밤, 홈커밍 행사를, 8일 일요일에는 농성 와드와 충장 와드의 예배 모임이 각각 열렸으며, 같은 날 오후에는 노변의 모임도 있었다.

기념행사의 절정을 이루었던 것은 단연 문화의 밤 행사였다. 청소년들이 정열적인 난타 공연으로 이 행사의 막을 열었는데, 사회자도 뜻밖한 청소년 두 명이었고, 춤 공연과 오케스트라 연주에서도 청소년들의 참여가 돋보였다. 신선하고도 힘찬 이들의 모습은, 광주 스테이크의 밝은 미래에 대해 확신을 더해주었다.

문화의 밤 행사에서 저력을 보여준 것은 젊은 세대뿐만이 아니었다. 전·현직 광주 스테이크 회장단을 비롯하여 중·장년의 형제자매들이 익살스러운 공트를 준비했다. 배우들은 우스꽝스러운 가발이나 의상을 뒤집어쓰고, 평소에 감추어두었던 숨씨를 뽐내며 명연기를 펼쳤다. 지도자들의 몸을 사리지 않는 코믹 연기는 관객들에게 큰 웃음을 선사하다가도, 그들의 겸손함과 노력하는 모습에 존경심을





자아내게 했다.

이번 기념행사는 광주 스테이크 회원과 구도자 이외에도, 광주 스테이크 출신의 타지역 회원들을 초대하는 대대적인 행사였기 때문에 더욱 뜻깊었다. 문화의 밤 행사 후반부에는 참석자 전원이 가곡 '보리밭'을 함께 부르며, 신앙의 선조들을 기리고 광주 스테이크의 발전에 대한 염원을 하나로 모았다.

이 행사를 마무리하며, 광주 스테이크에서 청소년 시절을 보냈던 지역 칠십인 김창호 장로는 다음과 같이 추억을 회상했다. “광주에 신앙이 뿌리를 내리던 때는 참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제가 청소년이던 당시 우리의 배를 채워주던 고구마와 팥튀기 같은 간식들은, 감독님께서 당신

자녀들의 뒤통에서 떼오신 것이었습니다. 우리 지도자들에게는 자신의 친자녀와 교회의 자녀, 이렇게 두 종류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돌봄을 받았습니다. 절 키워주시고 길러주시고 먹여주신 우리 지도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선조들께 진 빚을 우리 자녀에게, 교회의 청소년에게, 구도자와 신회원에게, 광주 시민들에게 갚아야 할 때입니다.”

광주 스테이크 헌납 특별 스테이크 대회에서, 또한 이를 축하하는 기념행사에서, 광주 스테이크 회원들은 다시 한 번 새로운 역사를 써나갈 것을 다짐했다.

광주 스테이크는 1967년에 광주

지부가 조직된 이래로, 1973년 지방부, 1980년 스테이크로 발전하여 현재에 이르렀다. 신앙의 기초가 자리 잡을 때까지 회원들의 무수한 노력이 있었다. 이제 새로운 스테이크 센터와 함께 새로 통합된 농성 와드와 충장 와드가 광주 스테이크 역사의 바통을 이어나갈 차례다.

헌납식 및 헌납 기념행사는, 광주 스테이크의 역사를 쓴 회원들이 고향으로 모여 함께했기에 더욱 의미있었다. 일요일 노변의 모임에서 박병규 형제가 말쑥한 것처럼, 우리의 진정한 홈커밍 행사는 ‘주님의 면전에서 다시 만나는 것이다. 그 날을 위해 광주 스테이크는 계속해서 구원 사업을 서두를 것이다. ■

스테이크 대회 모임 기사 자료 제공:
광주 스테이크 기자단



자립 지원 센터 개소

회원에게 가장 훌륭한 복지는 그들이 자립하는 것이다. 한국 교회 회원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교회는 무엇을 준비했는가?

십 이사도 정원회 쿠엔틴 엘 쿡 장로가 지난 5월 말 북아시아 지역 회장 마이클 티 링우드 장로와 함께 한국을 방문했을 때, 한 형제가 이렇게 물었다.

“가장 훌륭한 복지는 자립입니다. 회원들은 특히 교육과 취업에서 자립하도록 도움이 필요합니다. 한국 교회 회원들을 돕기 위해 교회가 준비한 것은 무엇입니까?”

쿡 장로와 링우드 장로는 다음과 같이 답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자녀가 굶주려서는 안 됩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은 몬슨 회장님께서 가장 집중하시는 사항입니다.

교회는 자립의 원리에 따라 복지를 실천하고 있으며, 이것은 최근에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에 자립 지원 센터(Self-reliance Center)가 설립될 것입니다.

회원들이 취업을 통해 자립하도록 도울 것이며 영구 교육 기금(Perpetual Education Fund)의 활용 방법도 함께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는 회원을 더 잘 돌보는 데 필요한 훌륭한 자원이 될 것입니다. 이에 더하여 우리는 모든 교회 회원들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금식 헌금을 더욱 풍성하게 낼 것을 권고합니다.”

한국 자립 지원 센터

쿡 장로가 예고한 것처럼, 회원들의 자립을 도울 한국 자립 지원 센터가 지난 7월 26일 개소하였다. 자립의 분야는 건강, 교육, 취업, 가정 비축, 재정, 영적인 힘 등의 요소가 포함된다. 한국 자립 지원 센터는 이 중에서도 교육과 취업에

자립 지원 센터 활용을 위한 자가 진단

1. 나는 최근에 선교사업을 마치고 귀환했으며, 향후 진로와 취업에 대한 정보를 구하고 있다. [10점]
 2. 나는 현재 실직상태이며 직업을 찾고 있다. [15점]
 3. 나는 현재의 직업이 불안하여 즉시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야 한다. [10점]
 4. 나는 현재의 직업에 만족하지 못하여 더 나은 일자리를 찾아본 지 6개월 이상 되었다. [5점]
 5. 지금보다 나은 새로운 직업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연락을 취하고 있는 업체가 전혀 없다. [5점]
 6. 나는 실직 상태이며 직업을 찾을 수 없을 것이라는 불안감이 들고 스스로 자신감이 없다. [10점]
 7. 나는 취업에 필요한 이력서 작성, 업체 탐색, 면접 요령, 프레젠테이션 등과 같은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느낀다. [5점]
 8. 나는 직업 관련 전문 기술훈련을 받고 싶지만 이러한 기관들에 대한 정보가 없다. [5점]
- 해당하는 항목에 표시하고, 표시한 항목의 각 점수를 합산한다.

진단 결과 체크

- A. 20점 이하: lds.or.kr의 자립 지원 서비스 페이지를 방문해서 기본적인 정보와 자료들을 읽어본다. 스테이크 자립 센터가 개최하는 진로 워크숍이나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도 있다.
- B. 21~50점: 감독님을 통해 스테이크 자립 전문가(스테이크 자립 센터)와 연락하여 도움을 받는다. 스테이크 자립 위원회의 구성원인 스테이크 회장단 보좌, 스테이크 상호부조회 회장, 자립 담당 고등평의회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다.
- C. 51점 이상: 지금 바로 자립 지원 센터로 연락하여 도움을 받는다.

특별히 초점을 맞추며, 기존 서울 취업 센터의 업무도 함께 담당하게 된다.

자립 지원 센터의 역할은 (1) 회원들이 자립의 원리를 배우고 실천하도록 돕고, (2) 신권 지도자들을 도와 스테이크 자립 지원 센터에 필요한 서비스와 도구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3) 회원들을 코칭하고 돕는 멘토링 센터(Mentoring Center)가 되며, (4) 취업, 교육 및 자영업 전시회 등을 통해 직업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스테이크 자립 지원 센터 및 위원회

자립 지원 센터의 개소와 함께, 각 스테이크에 자립 위원회 및 자립 센터가 조직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자립 전문가가 활동하고 있다.

스테이크 자립 위원회는 스테이크 내 자립 관련 필요 사항을 점검하고 계획하는 역할, 진로 워크숍의 개최, 상담 및 멘토링의 역할을 한다. 자립 지원 전문가와 스테이크 상호부조회 회장, 고등평의원, 스테이크 감독 복지 평의회 의장을 구성원으로 한다.

회원들에게는 자립 지원 서비스가 아직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다.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 할지 망설이고 있다면 앞 페이지의 자가 진단 테스트를 해본다.

자립서비스는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 서비스를 통해 수 많은 충실한 교회 회원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고 있다.

자립 지원 센터는 전 세계 112개가 운영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632명의 부부 선교사, 교회 봉사 선교사 및 자원봉사자들이 그들이 가진 시간과 재능을 기꺼이 나누고 있다. 또한, 스테이크 자립 지원 센터와 관련하여, 전 세계 3,050개 스테이크와 571개 지방부 중 1,095개의 자립 위원회가 조직되었으며, 732개 스테이크가 자립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 자립 지원 센터의 유병철 형제는 이렇게 말한다.

“자립은 자신과 가족을 위해 영적 및 현세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마련하는 능력과 각오, 노력입니다. 회원이 자립할 때 다른 사람을 위해 더 잘 봉사할 수 있고 그들을 더 잘 보살필 수 있습니다(지침서 제2권, 6.1.1 복지 원리와 지도력).

복음에 충실한 가정이 실직하여 사랑하는 가족을 부양하는 신성한 책임을 다할 수 없다는 것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특히, 나의 주변 형제자매들이 이러한 어려움에 있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자립 지원 센터는 도움이 필요한 충실한 성도들을 위해, 취업과 자영업 등 필요한 사항을 보다 더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하도록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 준비되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직업을 가짐으로써 영적, 현세적으로 자립하도록 돕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센터의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며 함께 고민하고 함께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한국 자립 지원 센터 운영 정보

전화 번호: 010-9464-0854

위 치: 서울 스테이크 신촌 와드 1층

운영 시간: 매주 월~금, 오전 10~오후 5시



위 사진: 한국 최초의 스테이크 자립 위원회인 서울 스테이크 자립 위원회
아래 왼쪽 사진: 왼쪽은 서울 취업 센터 취업 선교사 이종훈 장로 부부
아래 오른쪽 사진: 한국 자립 지원 센터 유병철 형제

내 인생에 결코 일어나지 않으리라 믿었던 일

수원 스테이크 안성 지부 이은미 자매

청년 시절, 내 인생에서 결코 일어나지 않을 일이 무엇이나고 누군가 묻는다면, 나는 '병원에 가는 것, 교회에 가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나와 관련이 없다고 믿었던 이 두 가지 사건은 아주 강하고 밀접하게 내게 다가왔다.

7년 전, 희귀암 말기 판정을 받고 나는 3곳의 병원에서 12번의 수술 및 시술을 받았고, 항암 치료 중 합병증을 겪으며 죽음의 문턱에 서기도 했다. 오랜 투병 생활에도, 암은 결코 치료되지 않았고, 담당 의사는 '병원에서는 더는 해줄 것이 없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대학 병원에서 임상 치료를 시작했으나 치료 중 새로운 발병으로 인해 임상 시험 대상자에서 탈락했고 치료가 중단되었다. 더불어, 희귀암을 치료하며 받았던 장애 연금도 중단되었다.

신체적, 정신적으로 완전히 무력해져 있던 2년 전, 나는 선교사를 만나게 되었다. 6개월이라는 오랜 시간을 구도자로 지내면서 교회에 대해 충분히 알아보려 애썼고, 이 교회가 참되다는 결론에 이르러 침례를 받았다. 부름을 통해 초등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며 받았던 즐겁고 따뜻한 느낌이, 아픈 몸이지만 새로 학원 운영을 시작하도록 용기를 주었다. 이 과정에서, 같은 지부의 오현기 형제님과 이한나 자매님이 내게 많은 도움과 배려를 아끼지 않았다.

복음을 알게 된 것이 모든 것을 쉽게 만들어주지는 않았다. 지난여름, 가깝게 지내던 지인에게 사기를 당했고 학원을 제외한 모든 자산을 잃었다. 지금도 나는 치료방법이 없어 암과 함께 지내고 있으며, 학원이 적자를 면하려면 학생이 현재의 두 배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체력이 많이 좋아져서 특별한 불편 없이 일상의 삶을 살 수 있고, 학원에서 아이들과 함께하며 즐거움과 보람을 느낀다. 이러한 일상생활의 즐거움과 보람은 우리 가족이 더 화목해지는 계기로까지 발전했다. 현실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경험하고 복음을 알게 되면서, 많은 깨달음을 얻었다.

내가 살아있는 것은 내 능력이나 의지가 아니다. 내 앞에 놓여있는 상황에 걱정하기보다, 내게 허락하신 오늘을 감사한다. 주님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시며,

내가 항상 바른 것을 선택하기를 바라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런 사실이 내게 가장 큰 힘이 된다. 평생 가지 않을 것이라 믿었던, '교회'에 갔고, 복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모든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고, 오늘도 용기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

새로 부름 받은 선교사

새로 부름받은 선교사 자매 2명/장로 6명



권대원 장로
부산 스테이크
해운대 와드
서울 남 선교부



김영수 장로
남 스테이크
봉천 와드
유당 솔트레이크
시티 남 선교부



박우림 자매
서울 스테이크
신당 와드
서울 남 선교부



서정현 장로
강서 스테이크
개봉 와드
부산 선교부



신준호 장로
강서 스테이크
화곡 와드
서울 선교부



이민영 장로
대전 스테이크
논산 지부
서울 선교부



장일원 장로
동 스테이크
길음 와드
부산 선교부



최영진 자매
서울 남 스테이크
서초 와드
서울 선교부

역원 및 단위 조직 명칭 변경

강릉 지방부

속초 지부 회장: 스코필드(전임: 블랙)

대구 스테이크

안동 지부 회장: 정요택(전임: 유형선)

서울 동스테이크

도봉 와드 감독: 최종길(전임: 박진수)